

종합

7년 끌어온 율촌 1산단 행정구역 조정문제 결국 전남도 분쟁조정위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달말 안건 상정

순천·광양·여수 등 3개 지자체의 현격한 입장차로 7년여를 끌어온 율촌 제1산단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끝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이달 말 율촌 1산단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을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율촌 1산단 내 공장 부지가 2~3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업체들이 각종 세금 납부와 행정 처리를 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율촌 1산단은 지난 1994년 첫 삽을 뜬 뒤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여

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의 바다 919만3000㎡를 매립해 조성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체 부지 919만3000㎡ 중 순천시가 393만4000㎡(42.8%), 광양시가 288만㎡(31.3%), 여수시가 234만9000㎡(25.9%)를 차지하고 있다.

분쟁의 시작은 산단내 행정구역이 필지별로 나뉘게 아닌,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면서다. 산단에 조성하면서 3개 지자체가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지 확보 분쟁이 발생,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졌고 현재는 지난 2006년 '해상 경계에 따라 산단부지를 나눠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산단내 3개 시의 경계선에 입주한 기업들이 예상

치 못한 불편을 떠안게 됐다.

경계선에 입주한 경우 1개 필지가 2~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탓에 일부 기업의 부지가 광양과 순천, 여수시에 동시에 속하게 되는 일이 빚어졌던 것이다. 이로 인해 한 기업이 지방소득세를 3개 지자체에 신고하는가 하면 사건·사고와 노사 분쟁 등이 발생할 때도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서 사이에 관할 문제가 끊이지 않는 다.

지적측량 하나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필지는 총 354만2000㎡에 달한다. 광양이 175만8000㎡, 순천 109만㎡, 여수는 69만4000㎡ 등에 이르며 이곳에 입주한 기업도 현재 5곳에 달한다.

경제자유구역청도 지난해 7월부터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3개 시 및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구역청은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면 지방자치법상 이행강제규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취임 직후부터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재 결정이 이미 내려진 데다 의회 동의 절차가 거쳐야 해 분쟁이 쉽게 해결될 지는 낙관할 수 없다고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미운오리' 무안공항 면세점 '백조'됐네

올들어 매출액 3억1887만원 ... 작년비 3배 뛰어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던 무안공항 면세점이 '백조'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철수한 뒤 경영난으로 폐쇄 위기에 처했던 무안공항 면세점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어서다.

전남개발공사는 올 들어 무안공항 면세점 매출액이 3억1887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월)에 견줘 33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9600만 원에 불과했던 매출액보다 2억2261만3000원 늘어난 수치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던 지난 2009년 1~3월 매출액(1억5000만원)보다 많다.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정기 항공

편이 줄어들었지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전세기가 크게 늘면서 면세점 이용객들도 증가했다는 게 전남개발공사측 설명이다.

예컨대 지난 1~2월 운항 항공기가 정기(47편)·부정기(35편) 등 82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편)에 비해 32편 늘어나면서 면세점 이용객도 1189명(출국객 5312명·이용률 22%)에서 3089명(출국객 9442명·이용률 32%)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도 6억8785만7000원(1인당 평균 구매금액 8만원)으로 집계돼 손익 분기점을 맞췄다.

개발공사는 올해 F1 코리아 그랑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된 데다,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전세기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올해 면세점 매출액 목표는 7억5000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인기 브랜드의 신규 입점을 확대하고 지역특산품을 전략상품으로 육성해 수익성 향상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무안공항 활성화가 면세점 매출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관광업계와 연계한 관광·여행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가 지난해 면세점의 전체 품목별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인기품목 1위는 주류가 39%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8%), 담배(23%), 향수·화장품(5%) 순으로 나타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3000억대 병·의원 급식시장 공략

친환경농산물 급식병원 14곳과 업무협약

전남도가 3000억원이 넘는 병·의원 환자 급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남도는 21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친환경농산물 급식병원 10곳과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4곳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급식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순천·강진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목포한국병원·목포중앙병원·목포기독병원·여수 전남병원·여수 성심병원·여천전남병원·순천 성가톨릭병원과 병광농협, 강진농협, 월출

농협, (유)농업회사법인 자연과농부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입원환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사업 선도 역할을 맡는다.

전남도와 식자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전남도는 의료기관 입원 환자 급식에 들어가는 연간 농산물 시장 규모는 전남 231억원 등 전국적으로는 37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 의료기관의 환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사용 붐을 일으켜 전남도의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지방신문협회 정기총회

일시: 2011년 3월 21일 ~ 22일 장소: 평창 알펜시아



"평창올림픽 유치 힘 모으자" 한국지방신문협회 제31차 정기총회가 21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에서 신수용 대전일보사장, 이창영 매일신문사장, 김순규 경남신문회장, 김종렬 부산일보사장, 유체철 광주일보사장, 송광석 경인일보사장, 이희중 강원일보사장, 서창훈 전북일보회장(왼쪽부터)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총회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평창=강원일보 최유진기자>

빛의 만평

- 김중두



뜨거운 소리만 골라서 한다

투자유치 정보 제공팬

전남도 "2억 인센티브"

'투자 유치 정보 제공하면 최고 2억원 드립니다.' 전남도가 기업 2000개 유치를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전남도는 21일 '기업 2천개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보상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투자유치 정보은행'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유치 정보은행이란 전남지역에 투자여향이 있는 기업의 정보를 도민이 제공하면 이를 토대로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기업유치 제도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다수출 막힌 꽃농가 돕자

농림수산부 등 소비촉진 나서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장미를 비롯한 화훼류 수출이 부진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화훼류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선 매주 화요일을 '꽃사는 날'로 지정, 화훼농가로부터 꽃을 직접 구입해 직원에게 판매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오는 25일부터 4월3일까지 10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1 광주 봄꽃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KTX 광주역 진입 대책위원회' 출범

북구주민·학계·의원 등 구성

광주시 북구 주민·학계·의원·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KTX 광주역 진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1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KTX 광주역 운행 고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국회의원 강기정 의원과 송광문 북구청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2014년 이후 KTX 광주역 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는 광주시가 2년 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탓"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광주역은 2009년 말 기준 192만7033명이 이용할 만큼 주요 교통 수단 거점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접근성 향상과 북구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KTX 광주역 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이 같이 KTX 광주역 운행 여부는 광주시 교통체계를 결정 짓는 주요 사안임에도 밀실에서 독자적으로 선택한 광주시의 밀실행정을 규탄한다"며 "2014년 이후 KTX 광주역 진입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날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한 뒤 ▲시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광주역 KTX 진입대책 수립 ▲광주 하남역 인근 광주역 진입 연결선 건설 등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장성을 중심에 위치한
임대/분양 공장

푸른산 테크빌

- 즉시 입주 및 생산가능 가능
- 군보조금 지원으로 파격적인 임대료
- 대폭 저렴한 분양가

분양/임대
총연건평 : 4,000여평
부지면적 : 6,200여평

- 170㎡ (57평형) 창업, R&D용
- 330㎡ (100평 대)
- 660㎡ (200평 대)
- 1,000㎡ (300평 대)
- 1,300㎡ (400평 대) 다수 준비됨.

문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38
삼양과 자연(주)
TEL:061-393-7855/7 (현장 사무실)
www.bluemountv1.com

제일건강 발목 펌프 운동봉

당신은 약을 전혀 먹지않고 불노장생(무병장수)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력만 하면 확실히 가능합니다.

1일 3,000회(소요시간약 30분) = 10,000보 걷는 효과!!

2011년 신제품 목침 겸용 발목펌프 운동봉이란?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cm 반원목침에 스프링과 소음진동방지가 장착되어 있어 취침 시는 목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기상하면 발목펌프 운동봉으로 평생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펌프 운동기구

- 목재 운동봉 가격 : 39,000원 무료배송!!
- 목침 겸용 가격 : 45,000원 무료배송!!

제일건강 상담 전화 TEL 062-672-2002 H.P 010-7510-200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2층

온라인계좌 • 광주은행 125-121-002455 • 농협 601154-52-335334 • 예금주: 서영섭

정품! 정량!! 난방유

SK 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 한드럼당 4천원~6천원 할인
- ▶ OK캐쉬백적립

내부세차 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자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웨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레스토랑	영화, 연극, 공연	일반 홍보용 어플 제작
골프 예약	카페	중고차판매

개발이력

모바일 게임 어플	다크 오브 나이트	홍보용 어플	소셜 커머스 '티켓몬키'
	스포츠 게임 천국		외 다수
	월 오브 드래곤		
	진상 액션		
	마쿠아 랜드		
	몬스터 체이스		
	외 다수		

문의 전화
(주)웨이커스 070-7581-7766
010-3549-9358